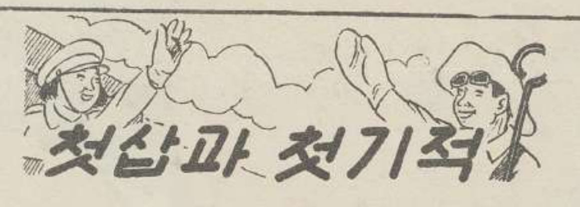
3 -MAY 26
Copy 1959

외화를 때면서 석탄산 골짜기를 달린다

박승히 그림

일부 일'군들은 내부 원천을 적극 동원하려 하지 않고 외국 수입 기자재에만 의존할려는 경향이 있다.



첫삽과 첫기적

신 춘

남 어 신년을 축하합니다.

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남 참 오래간만에 만나구 보니 모습까지두 달라진것 갈군요.

녀 오래간만이라니요? 어제두 만나서 표창력을 내라 어쩌라 허구서 뭐가 오래간만이예요?

남 원 참! 어젠 1956년이구 오늘은 1957년이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나구 금년에 첨이 아뇨?

녀 오 호"" 그러니까 이태만에 만난 셈이로군요.

남 허"" 참 설날이라 기분이 좋군요.

녀 그럼은요 집집마다 공화국기가 나붓기고 아이 어룬 할것 없이 싱글벙글 희망 찬 웃음의 꽃보라 판이예요.

남 그렇죠. 우리 공화국의 여러 공장과 광산에서, 기업소와 전설장에서, 농촌과 어촌에서 자랑 찬 로력의 성과로 우리 살림은 꽃이 피고 민주 터전은 화려하게 꾸며지는데 어째 행복의 노래가 없겠소?

녀 물론이죠, 5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대문을 활짝열어제치고 어깨 으쓱 치껴들고 나아가는 이 유쾌한 날에 어찌 승리의 축배가 없을 수 있겠어요?

남 참 저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는 말이 있지 않소?

녀 그게 즉 정월달에 있단 말이죠.

남 그렇지요 그래 정월 초하루'날 아침에 맨 먼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동무 무얼 먼저 했나요?

녀 나요? 나는 우선 먹었지요.

남 먹어요? 원 참 동무는 그저 먹는것 밖에 모르는구먼!

녀 할 수 있어야죠. 안먹을래야 안먹을 수가 없는 걸요.

남 그래 뭘 먹었단 말이요? 떡국?

녀 아뇨.

남 그럼 고기?

녀 아 떡국이나 고기야 보통 때두 늘 먹는게지만 내가 말하는 건 일년내 못먹었던 걸 설날 먹었단 말이예요.

남 그럼 약밥?

녀 아뇨.

남 그럼 시계?

녀 아뇨.

남 약과?

녀 아뇨.

남 그럼 다식?

녀 아뇨.

남 오 명이 길라구 명국수?

녀 그것두 아니야요.

남 그럼 술? 꿀? 물? 굴? 귤?

녀 아뇨.

남 그럼 미역국?

녀 내가 머 해산을 했나요?

남 아니 그럼 뭘 먹었단 말요?

녀 나이를 한살 더 먹었단 말입니다.

남 아하 나이? 참 그건 안먹을래야 불가불 안먹을수가 없는거로군요.

녀 동무는 무슨 일을 먼저 하셨나요?

남 나요? 나는 먹은게 아니라 멕였죠.

녀 무얼 멕여요?

남 석탄을 멕였지.

녀 아그머니나! 아니 누구에게 석탄을 멕여요?

남 용동무에게 멕였습니다.

녀 용동무라니요?

남 용광로 말이예요.

녀 호""

남 석탄을 멕여두 한삽만 멕인게 아니라 여러삽을 멕였죠. 우선 5개년 계획의 영광스러운 첫 삽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의 삽이다!》허구 본때 있게 콱! 멕였죠.

녀 그담은요?

남 둘째삽은 《평화적 조국 통일의 담보의 삽이다!》 허구 멕였죠.

녀 세째삽은요?

남 세째삽은 《세계 평화애호 인민의 철석 같은 단결의 삽이다!》 허구 푹 떠서 멕였더니 아 용광로두 대답을 헙디다 그려?

녀 아니 용광로가 무슨 대답을 해요? 석탄을 멕이면 확! 소리가 나지.

남 확! 허는 그게 바로 뭘지 압니까?

녀 그게 뭐예요?

남 그게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도 확! 허구 녹아나구, 《세계 제패의 야망》도 확! 허구 분쇄된단 말입니다.

녀 어이구 참 훌륭하십니다.

남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새해 첫날 아침에 허는일이야 으레 이런 실천적인 일을 해얄게 아닙니까?

녀 왜 이렇게 혼자만 장하신 척 하세요? 그만한 일쯤이야 누군 안했을라구요?

남 그럼 동문 어떤 일을 하셨나요?

녀 나요? 나는 울렸지요.

남 울려요? 아니 정월 초하루'날 남을 기쁘게는 못허나마 울리다니요?

녀 울렸다니까 뭘 울린줄 아세요?

남 그럼 뭘 울렸단 말요?

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물자를 잔뜩 실은 나의 기관차가 말이예요. 나라의 대 동맥을 달리질 않겠습니까?

남 옳지! 동문 기관사니까.

녀 《무사고 주행》의 결의도 드높이 민주 수도 평양을 척 들어서면서 뛰— 하고 첫 기적을 울렸단 말이예요.

남 네 승리를 약속하는 결의의 기적을 말이군요.

녀 아무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울리는 기차에다가 평화 통일의 웃음을 남반부 인민들에게 실어다 줘야죠.

남 아무렴 기세도 드높이 허""

조립인간

유 항림

독자 여러분께만 비밀로 말씀 드리지만 우리 젊은 축들 사이에서는「조립씨」라는 말이 돌아가고 있답니다. 「조립식 이란 말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확실히「조립씨」입니다. 경리부장 동지에게 젊은 축들이 붙인 별명이랍니다.

경리부장 동지의 그 얼마간 목톡한 걸음거리는 실인즉 김지배인의 걸음걸이를 본딴 것이고 그의 다소 우습광스러운 말투는 그 다음으로 부임돼 왔던 리지배인의 것을 모방한 것이고 그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는 오락인 주패는 요 전번에 갈려간 박지배인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배운 거라고 방아'간 참새들 같은 젊은 축들이 말하고 있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그의 언어, 행동, 정서, 취미 할 것 없이 모두가 여지껏 웃사람으로 그가 모셔온 사람들의 것을 하나씩 주어다 조립해 놓은게 틀림 없다나요.

경리부장 동지는 항용 존엄성이란 말을 잘 쓰기 좋아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마 상부를 존경하는 남어지 무어건 모방을 하지 않을 수 없어지는 게지요.

상부에 대한 그의 존경심에 대해서 말한다면 웃사람이 만일에 담을 가리키며 《이건 문이다》하는 경우에도 갖은 용기를 다 낸대야 겨우 《이 문은 닫혀있구만요》하면서 눈웃음을 짓는 것이 고작인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웃사람의 비위에 거슬릴 수도 있는 말을 감히 한 자기의 대담성 때문에 사흘 동안은 번민한답니다.

그런데 요즘 방아'간 참새들이 또 쑤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전에 최지배인이 새로 임명돼 왔으니까 조립씨에게도 응당 변화가 일어날 게라나요.

그러든 중에 하루는 방아'간 참새들이 환성을 올렸답니다. 조립씨가 새 모자를 쓰고나왔거든요. 뭐 그리 신기한 모자는 아닙니다. 뒤를 꾹 눌러서 쓰는 캪인데 단지 새로 온 최지배인의 모자와 같았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을 뿐이지요.

활기 있게 말하며 쾌활하며 동작이 늘 경첩한 사업가인 최지배인에게는 가죽 잠바를 입고 캪을 뒤로 꾹 눌러쓴 옷차림이 잘 어울린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이랍니다.

경리부장 동지도 여기에 곧 주목하게 됐던 거랍니다. 그래서 실지론 편리한 점이 많은 방한모를 벗어버리고 캪을 하나 사서 썼는데 가죽 잠바만은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았지요. 그가 입버릇 같이 《사업이 바쁜 사람에겐 사실 외투는 불편한 거야! 잠바가 제일이겠어!》 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가죽 잠바는 사실 일이백원 짜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죽 잠바는 단념하고 적당한 천으로 잠바를 만들어 볼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걸로는 아무래도 최지배인의 그 경첩한 옷차림 맛이 나지 않겠거든요. 자기 외투를 그만 가죽 잠바와 바꿔 보려는 생각도 해 봤지요. 그러나 지배인 자신도 직장엔 잠바를 입고 나오군 하지만 외출할 때는 외투를 입는 일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 외투를 내놓을 수도 없는 일여고 남 모르는 마음고생이 여간 아니였답니다.

그는 끝내 용기를 내서 만난을 배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죽잠바를 하나 마련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리하여 하루 아침은 드디어 최 지배인의 것과 흡사한 가죽잠바를 입고 나타났답니다.

그는 출근부에 도장도 누르기 전에 먼저 지배인실 앞 복도에 걸려있는 거울로 갔지요. 예, 전신이 다 비취는 큰 거울 말입니다. 그는 지배인의 옷차림과 꼭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족했어요.

거기서 용기를 얻은 그는 지배인의 몸짓까지 흉내내 볼 생각이 일어났답니다. 거울을 옆에 두고 모로 돌아섰다가 혹은 끈끈히 그냥 곧추 세운채 바른 팔굽을 뒤로 끌어당기면서 상반신 전체를 휙 뒤로 돌리는 지배인의 그 곧은 목 같은 동작을 본따 보았을 때 황홀하게도 거울 속에서 완연한 지배인이 그를 돌아보며 웃질 않겠어요.

틀림없는 지배인 동지로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이 조립씨의 표정은 갑자기 공손해지면서 손은 반사적으로 모자를 벗어 들었고 잘 길들은 그의 허리는 저절로 굽어졌다나요. 그리고는 여쭈었지요.

《지배인 동지, 부르셨습니까?》

새해의 첫신호

리영춘 그림

만단의 준비는 됐습니다

관료주의자

그대로 내밀다가는 뒤로 자빠지겠소 빨리 허리를 펴시오

안일분자

이제는 잠을 깨시오

아첨쟁이

이제부터는 그 나긋나긋한 허리를 좀 펴시오

가게를 열자 마자

리승만—새해 마수거리 더럽다
위 기—월! 단골 아니냐!

백인균 그림

신 홍순

안해 여보 경찰서에선 설날두 모르우?
순경 아냐 딴 볼일이 있어 좀 댕겨 올레야.
안해 오래 있지 말어요. 시골서 오빠가 올라 올텐데
순경 아 어제까지두 오지 않은 사람이 설날 아침에 올까?
안해 누가 아우? 기차가 또 연착이 돼서 그런지…내가 편지루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다구요. 처남매부간에 서로 얼골두 알겸 이번 설만은 꼭 올라와서 같이 쇠자구
순경 알았어.
안해 근데 무슨 볼 일이요? 볼 일이 대관절?
순경 사냥을 가.
안해 사냥? 오 돈 잡으러 나가는구려!
순경 서장댁에랑 선물 헌 걸 아무걸루나 봉창을 해야 될게 아냐? 공짜는 공짜루 때야 되는거야!

순경 이봐! 거기 섯!
김 왜요?
순경 왜구 뭐구 섰으란 말야! 어디 살어?
김 살긴 경상도 사는데 친척집에 댕길려 오는 길이요.
순경 그 옷 벗어!
김 아니 옷은 왜요?
순경 그런 군복은 무조건 압수하기루 됐단 말야!
김 압수요? 무슨 리율가요?
순경 요즘 군대에서 도망병이 하두 많기 때문에 어느놈이 어느놈인지 취체허기 곤난해 그러는거야! 리 대통령의 특별 지시다. 어서 벗어!
김 아니 이 추위에 옷을 벗으면 난 어떠허란 말요?
순경 그런걸 내가 알게 뭐야? 잔소리 말구 어서 벗기나 해!
김 아니 절름발이 제대군인이 이것 아니면 뭘 입으란 말이요? 당신네들이 우리 같은 제대 군인에게 옷 한벌 줬소? 다 떨어진 헌 군복이나마 걸치구 댕기는걸 이 추위에 벗겨?
순경 이게 제대군인 행셀 허러 드네 임마! 누가 그런 사정 듣재? 어서 벗지 못해?(벗긴다)
김 아니 이거 막 벗기며 야단일세.
순경 빨리 팔대기 빼!
김 호 원참! 엥이 이놈의 세상이 얼른 망해야해.
순경 개소리 말구 어서 아랫 쯔봉마저 벗어.
김 여보! 아무리 대통령 명령이기루 이럴 수가 있소? 알몸둥이루 이 눈구뎅이에 얼어 죽으란 말요?
순경 이 자식아? 벗으래면 벗을게지 무슨잔소리야?
김 자식?
순경 그래 이 자식아! 노려보면 네가 어쩔테냐?
김 벗으래면 거냥 벗으께지 욕은 왜 허우?
순경 이 자식이? 어디라구 대들어? 코노야로(따귀를 때린다)
김 어유! 코피! 야! 이자식이? 너 한대 먹어봐라! 엥이(절고 다니면 지팽이로 때리고 뛴다)
순경 아이쿠! 저놈 도망친다! 붓들어라!

△

안해 아니 오빠! 웬 코피요? 대체 이게 어떤 일이예요? 맨 샤쯔 바람으루?
김 어서 이불이나 하나 더 덮어 줘
안해 (이불을 덮어주며) 웬별일 다 보네 어디서 도망을 쳐 오는 길이예요?
김 망할 개자식 때메.
안해 누구 말예요?
김 순경놈 말야.
안해 순경이요?
김 그래 다 떨어진 군복 하나 입은걸…
안해 군복을 입었드랬수? 며칠 전부터 여기선 군복을 벗긴다우 저번엔 하루에 머 7만 4천여벌을 벗겼댑더다. 그저 누르스럼한 옷만 입었으면 그 녀석들이 그걸 뺏겨선 뒤루 팔아 먹는대요.
김 오라질 자식 같으니.
안해 어떤 녀석이 그랬는지 자세 알아 가지구서 옷을 찾아야죠. 웬 아무리 순경질을 해 먹어두 설날 아침에 남의 옷을 벗긴담!
김 그놈의 자식 상판대길 내 똑똑히 봐 뒀으니까.
안해 오빠 그럼 고단두 하실텐데 우선 푹 좀 쉬셔요 내뭘 좀 끓여 가지구 올게. (나간다)
(잠시후)
순경 (들어와서) 여보! 뭐이 추워서 이렇게 이불을 둘씩이나 뒤집어 쓰구 이래? (이불을 벗긴다) 아니 이게? 오 이놈이 여기 와서 숨어 있구나 (발로 차며) 이 자식아!
김 오 네놈이 예까지 쫓아 왔구나! 남의 코필 내놓구서 그래두 모자라?
순경 뭐 어째? 이 자식아! 넌 왜 남의 골통을 이렇게 맨들어 놨니! 이 자식아!(따귀를 때린다)
김 이 자식 봐라! 네가 여태 지팽이 맛을 덜 본 모양이로구나! 엥이 요 배라먹을 자식같으니! (때린다)
순경 너 이자식! 경관을 때리구 살줄 아니? 이놈의 자식!(멱살을 잡는다)
김 너 멱살 놓지 못하겠니? 이놈의 자식!
순경 요놈의 자식!
김 이놈의 자식!
△서로 싸움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안해 들어온다.
안해 (놀라며) 아니 왜들 이러시우? 여보 놔요! 오빠 이걸 놓구 말좀 해요.
순경 뭐? 오빠?
안해 그래요 오빠 우리 쥔이예요.
김 뭐? 아니 이 자식이 매부야? 아휴!

욕심은 두려울 수록 희망은 간들간들

미제—금년에도 견디여 낼까?

송용남 그림

더욱 더 커진 목소리

최영근 그림

방대한 예산과 빈약한 원천

—그 많은 돈을 어데서 빼낼려오?
—예 바로 저기에서…

조명식 그림

리 승만 괴뢰정부는 작년보다 60%나 더 증대된 2,185억환의 방대한 예산의 세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영》 《관허》 료금 인상과 세금 인싱 및 4백여억환에 달하는 《국채》발행 등등으로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빈궁하게 만들 것이다.

보약과 저승길

최 재홍

갑 여보게! 자네 보약을 먹을 쑤록 저승길이 가깝다는 말 아나?

을 신년 벽두부터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갑 리승만일 두구 하는 말일세!

을 보약이야 오래 살려구 먹는게 아닌가?

갑 여부가 있나! 그렇지만 리승만이만 구렇지 않으니깐 하는 말일세! 자식 이름부터 패먹지 않았거든! 2 측 둘에다 만을 승하니 이만이란 말이야!

을 옳지! 2에 승하기를 만이니깐 2만이라…

갑 이만 살구 빨리 죽어야 한단 말일세!

을 그자식 보약두 쉽헛 먹었겠는데…?

갑 원래 늙었거든! 새해가 되구 보니 인제 여든네살이 아닌가?

을 어서 저승길 얘기나 해보게!

갑 늙은게 미국 녀펜네를 데리구 살며 빨리 죽긴 싫구 하니 더 많은 보약을 먹어야겠단 말이야!

을 서서에다 수억딸라의 저금을 해두구있다지 않어?

갑 승만이두 그런 점에선 꽤 약삭바른자야! 여차직하는 날엔 서서루 도망을 가려구 우리 나라의 보물은 다 팔아서 서서에 저금을 했거든!

을 그래서?

갑 그런데 서서은행에 저금의 키가 커갈수록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더욱 커가지. 그래서 자연 계걸스럽게 보약을 먹고 있단 말야

을 인삼에다 산삼 해삼 록영 물'개 참 없는게 없으니까?

갑 또 그렇게 다 팔아먹자면 대통령자리를 더 유지하구 미국놈들에게 갖은 아양을 다 부려 아첨을 해야 하거든!

을 그래서 따우링이나 화이트말이면 그저 예—스 예—스 하며 꼬리질이구만!

갑 그러니깐 상전인 미제는 제맘대루 우리 나라를 집어 삼키려구 멤벼든단 말이야!

을 이번에 조작한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두 바루 그렇게 나온게 아니야?

갑 을사조약보다두 더 심한 매국조약을 체결했단 말일세!

을 그래서 서울엔 소위 《백패든 제국》이란 딴 세상두 생겼네그려!

갑 《백패든 제국》이 아니라 막패는 제국이야! 닥치는대루 치구 패니 감금하구 월급두 안주구…정말 미국놈의 세상이라니깐!

을 망할것, 그래 하던 얘기나 계속해!

갑 자 그런 조약을 맺고 보니 남반부 인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질 수 바께!

을 아무렴 그렇구말구!

갑 원성이 높아지니 리 승만은 갖은 테로와 학살을 일삼는단 말이야!

을 장면 《부통령》저격 사건두 리승만이가 조작한 테로 행동이지!

갑 탄압을 하면 할 수록 인민들의 반대 투쟁은 점점 더 커지지!

을 참 굉장하든데 부산 인천등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 학생들의 동맹휴학 또 농민들이며 지어는 목짤리운 공무원들까지두 그뿐인가 상인들까지두 사바사바와 오가잡탕 세금을 반대해서 일어나지들 않았나?

갑 량심있는 기자 작가들두 서울신문(자유당 기관지)엔 투고를 않겠다구 성명을 발표했다네!

을 점점 고립되여가는군그래!

갑 그러니 리승만은 이 인민들의 반대 투쟁을 억압하고 주의를 딴데 돌리게 하기 위해서락두 얼토당토않은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라고 떠버리며 북진 전쟁소동을 소란스럽게 고창하고 있단 말일세.

을 속심이 더러다 뵈는걸!

갑 그러니 리승만이가 한줌도 못되는 졸도를 데리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댔자 뭉쳐진 삼천만 인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무슨 수로 당해 낸단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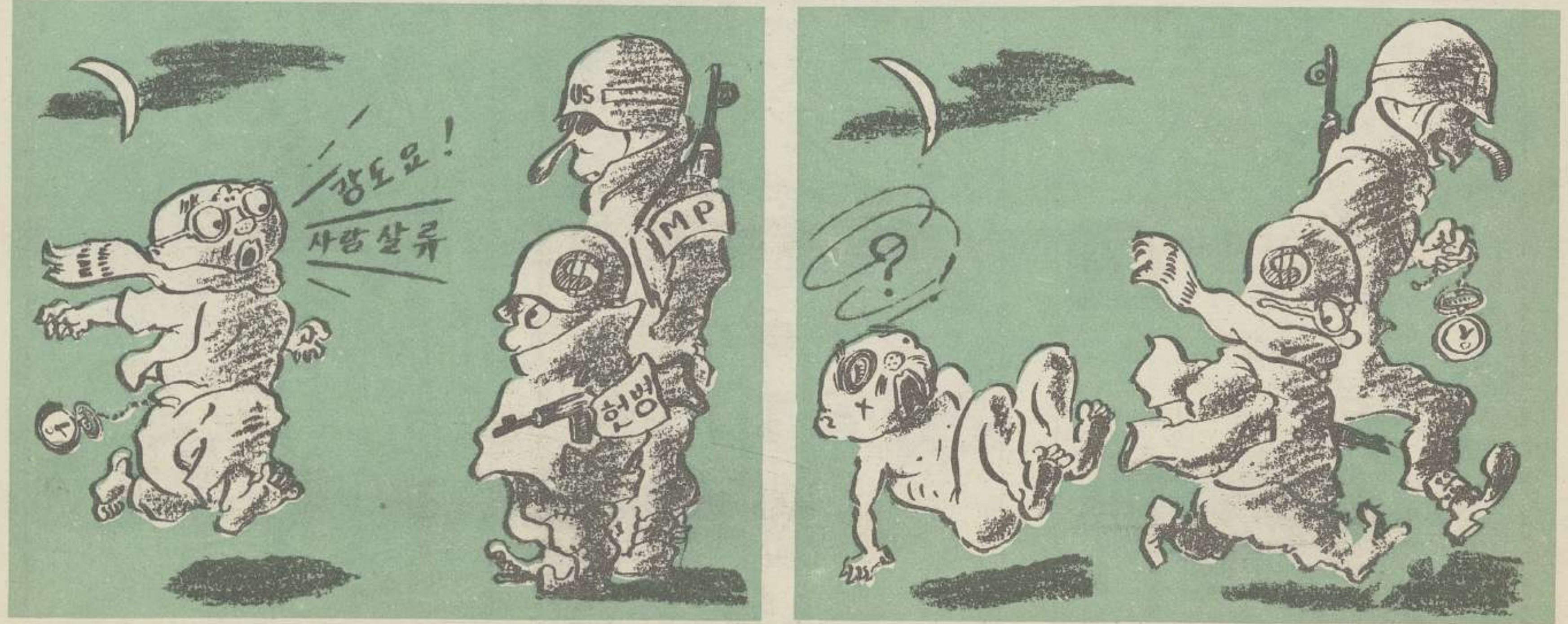
을 저러다 정말 쓸어지구 말겠어

갑 인젠 사파세계에서 못할 것을 그만큼 축두록 했으니 정말 이만해서 빨리 저승을 가야 해!

을 오라 그러니까 보약을 제아무리 먹드래두 서서 보다는 저승이 더 가깝겠군그래

갑 이게 리승만에 대한 12단 톤법이야! 하하""

리레식 강탈



백인균 그림

개는 갠데?

—좀 이상스러운 갠데?
—저게 바로 양캐라는 개야

송용남 그림

차표

유 항림

부산에서 이름 난 갑부이며 고무 공장 주인이던 박 창훈 로인은 1947년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는 은퇴했었다.

그런데 남조선 천지로 밀려드는 미국 잉여 상품과 경쟁해 낼 수가 없는데다 가지각색 명목의 세금들까지 가중해져서 맏아들 경수가 물려받아서 경영하던 고무 공장이 드디여 문을 닫게 된 후로는 살림살이가 퍼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맏아들에 대해서 자연 불만이 차츰 자라게 되였고 끝내 어느 날은 서울 있는 둘째 아들네게로 간다고 야단을 치게 되였다.

하는 수 없이 박 경수는 차표 한장을 사서 아버지 앞에 내 드렸다.

《급행권과 침대권은 어디 있느냐?》

차표만 한장 댕그랗게 내놓는 것을 본 박 창훈 로인은 얼마간 노기를 띤 목소리로 물었으나 경수는 아버지의 성미를 아는지라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얘야 난 젊었을 때두 급행에 침대가 아니고선 서울가 본 일이 없는데 칠십이 넘어서 완행차를 타란 말이냐? 난 완행차는 못타겠다. 부산의 박 창훈이라면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갑부였는데 이제 칠십이 넘어서 침대에 눕지두 못하구 완행차루 가라니!》

《아버지 차값이 여간만 오르질 않았습니다. 급행권만 하드래두 1천6십 환이구 침대권이 또 8백 4십환입니다. 3등차표까지 합하면 4천환이나 됩니다》

《얘 듣기 싫다. 그럼 3등 차표를 사왔단 말이냐? 경상도 일대에서 갑부로 알려졌던 내가 그래 3등차에 그나마도 완행에, 게다가 늙은 놈이 침대에두 눕지 못하구 서울까지 가란 말이냐?!》

《………》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내가 물려준 그 많은 재산을 다 불어 먹고, 인제 와선 아비가 서울 간다는데 차표 한장 번번히 사줄 돈두 없어진 모양이구나! 내 그럴줄 알았다!》

든든히 믿는 구석이 있는 박 창훈 로인은 노기가 등등하여 속 주머니를 뚜지더니 저금 통장 하나를 아들 앞에 내 놓았다. 십년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 줄 때 로후에 혹은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대금 백만원을 아들들도 모르게 떼내여 감쪽 같이 은행에 저금해 두었던 것이다.

《옛다, 내 그럴줄 알구, 여기 큰 재산 하나를 저금해 뒀으니 이걸 가지구 가서 1등 차표 한장에 급행권과 침대권까지 살 돈을 찾아내도록 해라!》

아버지가 큰 재산 하나를 아직도 저금해 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경수는 반가웠다. 그러나 저금 통장을 받아 들고 물끄럼히 들여다 보던 경수의 얼굴에서 잠시 떠올랐던 기쁨은 사라지고 시무룩해지면서 중얼거렸다.

《백만원이구만요!》

《그래 백만원이다. 리자만 찾아도 한동안 먹을 건 되겠지!》

1947년도에는 백만원이란 돈이 그 얼마나 큰 재산이였던가!

《아버지, 백만환이니까 요즘 쓰는 환으루 찾아내구 보면 결국 만환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서울까지의 1등 차표와 급행권과 침대권까지 사려면 만환이 훨 넘습니다. 이 저금으론 모자랍니다.》

《뭐, 뭐야? 저금할 때는 그 돈이면 큰 부자 행세두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돈으루 차표 한장 살 수 없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날마다 물'가가 오른다, 관영 료금은 올린다 하구 아우성하는 목소리들을 듣지 못하셨어요? 이런 형편이니까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못살겠다구 떠드는 것 아닙니까?!》

《망할 놈의 세상이로군!》

《서울 아우두 요즘은 령락해서 살기가 곤난하다는데 아부님이 가시드래두, 오래'동안은 거기 계시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저금을 다 찾으시면 3등차로 서울까지 갔다 올 려비가 겨우 될겁니다.》

도매상이 아니다

어느 마누라 한분이 바께쯔를 들고 동대문 안에 있는 석탄 가가로 갔다.

「석탄 삽시다」

「어서 오십쇼, 얼마나 올릴까요?

「이 바께쯔로 하나만 주십쇼」

「우린 소매상입니다. 도매로 넘길 것까지는 없는뎁쇼.」

「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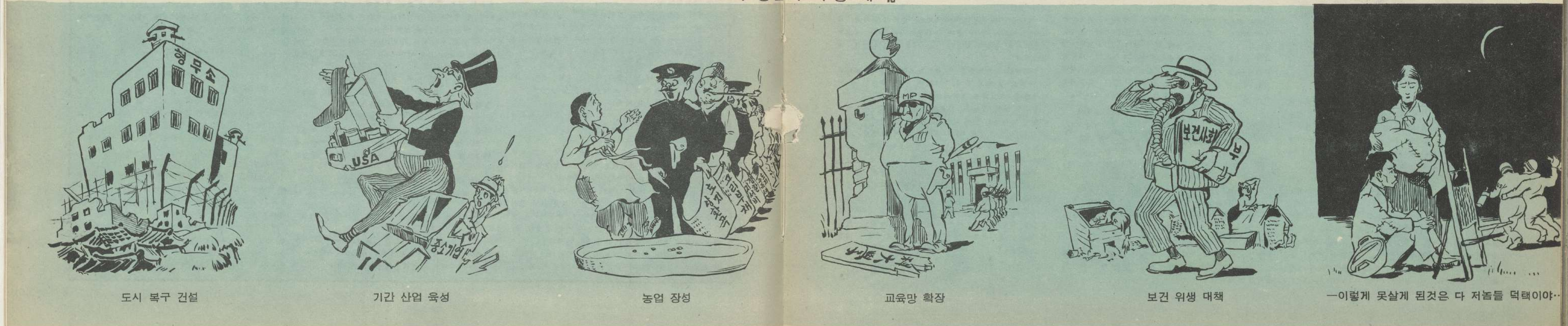
「보아하니, 석탄을 한꺼번에 한 바께쯔나 사려는 품이 석탄행상을 하시는 모양 같은데, 우리 가가에서는 한되 두되씩 소매나 했지 도매로 넘길 거야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석탄 한톤에 2만여환이다. 값도 비싸지만 일반 시민으로서는 석탄 한가마니를 한꺼번에 사는 일은 아주 희귀한 일이고, 보통은 되'박으로 팔고 사는데 석탄 한되에 1백환이다.

리영춘 그림

리 승만의『부흥 계획』

홍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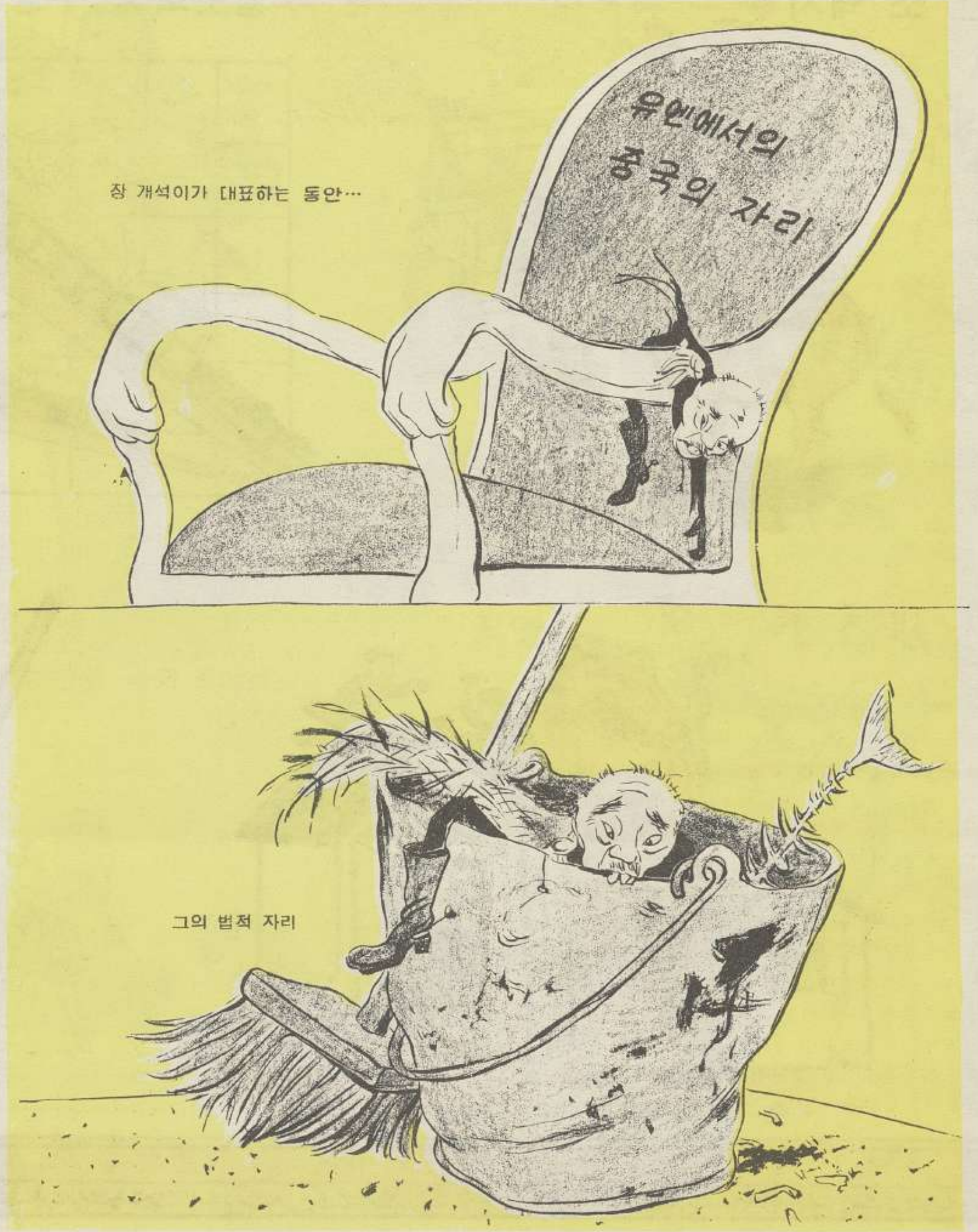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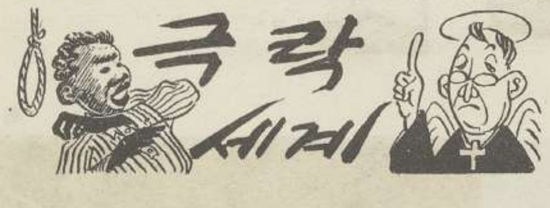
КРОКОДИЛ — 쏘련 "끄로꼬질"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6. 33호에서 전재
그림 브·에피모브

둥지를 틀었다…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6. 34호에서 전재
그림 꾸꾸리닉스





미국의 현대 철학가 노루만 윈센트 삘은 잡지 《루—크》에다 독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몇페지의 대답을 게재하였다. 질문들은 온갖 생활고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어떤 경우에도 삘은 위안을 주는 대답을 보장했다.

최근에 《루—크》의 현명한 사람은 흑인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자기와 자기 처와 네명의 아이들이 아주 신앙심이 깊어서 죽은 후에 천당에 가기를 념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계속하여 다음과같이 씌여 있었다. 천당에서의 인종 관계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고를 걱정시켰다.

백인을 위한 천당이 따로 있으며, 흑인을 위한 천당이 따로 있는지, 만일 공동 천당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제도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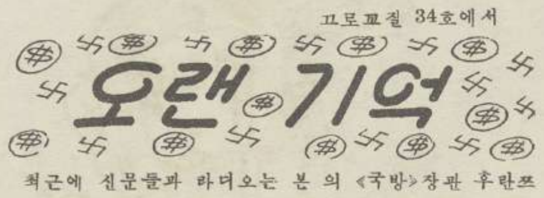
《하느님은 천당에서 우리들에게 백인들의 머슴'군자리를 줄 것인가?—흑인 독자는 질문을 한다—만일 우리에게 백인과 함께 있는 것이 허용된다면 지상에서 우리들에게 랭혹하게 대해오던 그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지 않겠는가? 나는 아무리 자문해봤지만 대답을 찾지 못한다》

삘은 모든 것을 안다. 그는 권위 있게 설명했다.

《천당에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단연 확신한다》. 《분노하지 마시오—만능한 위안자는 첨부하여 말한다. 장기간에 걸친 불공평한 대우는 급속히 소멸해 가는 도상에 있다》

《루—크》의 독자가 이와 비슷한 설명에 동의하겠는가? 미국에서 인종 차별 대우가 소멸해 가는 도상에 있다는 것은 어째선지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에 전세계 출판물들은 남부 주들에서의 인종주의의 새로운 발생에 대하여 쓰고 있다. 사형리들이 사후의 세상에서는 점잖게 행동하리라고는 신앙심이 깊은 흑인들로서도 믿기 어려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끄로꼬질 34호에서



최근에 신문들과 라디오는 본 의 《국방》장관 후란쯔 이오시프 슈뜨라우쓰의 연설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대체로 이 연설은 아무런 특별한 내용도 없다. 흔히 있는 북쑤적인 연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뜨라우쓰 씨의 어느 한 구절은 그자신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게한다. 《우리들은 기술의 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국방 장관은 소리 높이 웨쳤다— 지도에서 쏘련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동맹자들의 힘이 충분히 통일될 때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불완전하다는 뚜렷한 표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날 아직까지도 이와 비슷한 성명들을 가지고 연설한다는 사실은 모스크바 부근에서 히틀러 군대가 파멸한 15주년 기념일에 보조를 마추는 것이 아닌가!

《쏘련을 지도에서 없애야한다》는 슬로강은 결코 새로운 것으로는 될 수 없다. 후란쯔—이오시프 슈뜨라우쓰에게는 선배가 있는바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이다.

수백만의 독일인들은 이 몸서리치는 이름에 관하여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슈뜨라우쓰는 싹 잊어버렸다. 깨끗하게 잊어버린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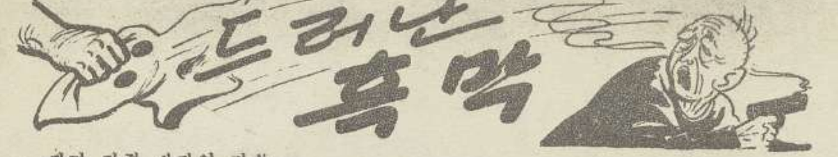
용감한 본의 장관은 자신에 대한 한가지 부분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잊어 버렸다. 바로 그 자신이 추위로 인하여 발은 꽁꽁 얼고 반주검이되여 쓰딸린 그라드로부터 서쪽을 향하여 간신히 걸어오던 1942년 12월달에 대하여도 잊어버렸다.

슈뜨라우쓰 씨가 본 륙군의 지도적 지위를 찾이한 것은 극히 최근이다. 몇주일 전이다. 그런데 벌써 두각을 나타낸다.

알고 싶은 일이다. 본 에서는 어떤 원칙에 의하여 장관들을 선출하는지? 대체로 판단하건대 장관의 지위에 오를 후보자들에게는 건망증이 가장 선차적인 조건인듯 싶다.

끄로꼬질 35호에서

(한 동 신 번역)



—장면 저격 사건의 진상—

류 기현

작년 9월 28일 대낮에 서울 시립 극장에서 《부통령》장면은 권총저격을 받았다.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찰은 전례에 없이 곧 기자단 회견을 소집했는데 저격범 김 상붕은 이번 사건의 동기가 《민주당 내분관계》라는 의미의 《중대발언》을 기자들에게 했었다.

뒤이어 《내무부 장관》 리 익흥과 《치안 국장》 김 총원도 이번 사건은 민주당 내분관계로 발생했다고 공식 성명을 했다. 동시에 경찰은 사건의 직접 배후 책임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체포된 배후 인물 최 훈은 민주당 서울시 성동구당부의 이전 간부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유당 계렬의 신문들은 민주당 내의 알력에 대해서대서 특서 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이 리 승만의 자유당이 조작한 음모라는 공개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배후 관계를 밝히라고 《행정부》에 항의했다. 한편 야당과 《국회의원》들은 《내무부장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국회》가 특별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정방침》대로 경찰조서와 함께 범인을 검찰에 넘김으로써 수사를 조급히 락착지었다. 한편 《국회》 조사 위원회의 민주당 출신 위원들의 손에는 범인들이 사건 범행 전에 5일간이나 《치안국》내에서 비밀히 회합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쥐여졌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국회》내의 자유당측은 조사결과가 《새로운 것이 없고》 《경찰조서와 일치》하다는 보고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검찰에서는 《경찰조서와 완전일치》하는 검찰조서와 함께 범인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하여 긴장된 사회여론과 초만원을 이룬 방청자와 정사복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서울 지방법원 대법정에서 공판이 열렸다. 그런데 이자리에서 뜻밖에도 김상붕은 이번 사건에는 성동 경찰서 형사주임 리덕신을 비롯한 3명의 현직·또는 전직 경찰관들이 직접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들에 대해서 《치안국장》 김 총원은 허위 보도라는 구실을 붙여서 취소하라고 강제하는 동시에 신문 책임자를 호출했다. 그러면서 김 상붕의 두뇌감정을 못해본 것이 철천의 한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더욱 비등된 여론 속에 1월 7일에 다시 3회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 경찰조서를 승인하는가?

최 훈 최훈이란 두자만 빼놓곤 전부 허위요.

재판장 범행동기는?

최 훈 리덕신 형사주임이 장부통령을 죽이면 경기 화물 자동차회사 사장도 시켜주고 우데기돈도 준다고 하면서 강요했소. 그리구 직접배후는 리 덕신이지만 그것은 상부지시로 된 거요.

재판장 범행 모의는 누구와 했는가?

최 훈 먼저 리덕신 주임의 소개로 김 총원 《치안국장》을 만났더니 《리 덕신은 용감한 사람이라. 겁먹지 말고 싸우라》고 하면서 《치안국 특정과장》 장영복과 의논하라고 소개하였소. 또 장 영복은《치안국 중앙분실장》 박사일을 소개해서 그들과 상의했소.

재판장 자금 출처는?

최 훈 리덕신이 시 경찰국 오충환 사찰과장에게서 50만환을 가져왔소.

재판장 가족생활비는?

최 훈 중부 경찰서장이 백만환을 준다고 했소.

재판장 권총은 윤 태봉에게서 샀다는 것이 사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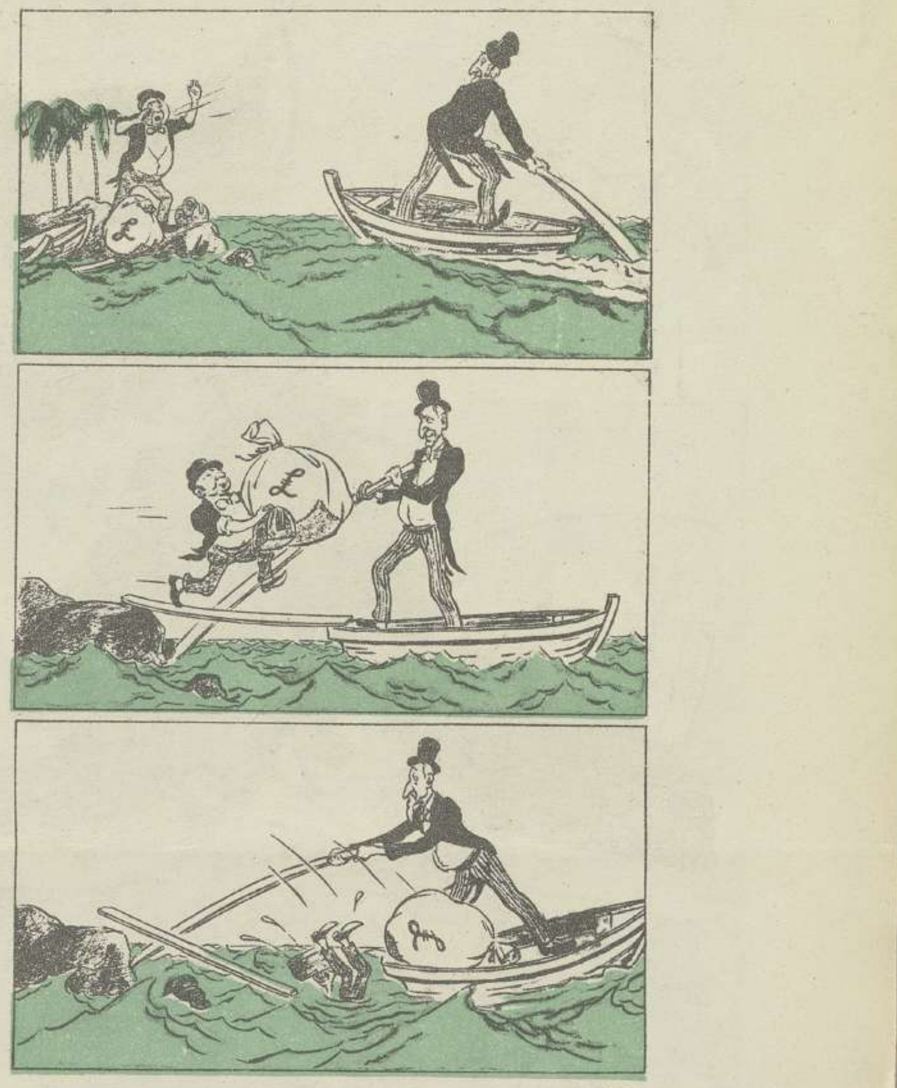
최 훈 윤태봉이란 경찰이 만들어낸 유령 인물이고 권총은 리덕신 주임이 《치안국》에서 가져다 주었소.

재판장 김상붕은 최훈의 진술에 동의하는가?

김상붕 예, 그리구 내가 경찰병원에 있을때. 김 치안국장은 찾아와서 《이놈아 왜 한방만 쐈느냐 엉, 네방을 다 쏘지 못하고》하면서 기자단 회견에서라도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약속대로 해주겠다고 했소, 그리고 형무소로도 《1, 2, 3심까지 경찰조서와 일치하게 진술하면 석방한다》, 《높은 직위와 천만금이 기다린다》, 《가족 생활비는 걱정말라》는 등 경찰의 밀서가 사흘거리로 왔었소.

이렇게 하여 경찰당국이 조직적으로 현직 부통령을 저격케 한, 세계 력사상 전례가 없는 흉모가 백일하에 들어났다. 이 암살미수사건은 리승만이가 《내무부장관》에게 명령하고 《내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여 감행한 사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모를 사람은 없어졌다.

미국의 구원



송용남 그림

환상과 현실

—메리! 애급에서 많은 선물을 가져 올테니 빠이 빠이

—메리! …

최영근 그림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6, 16호에서 전재
그림 그·엘리쎄예브

—성에서는 나에 대한 당신의 불평을 심의할 것을 나에게 위임 했소. 그래 이제-당신은 자기의 변명을 말해 보시요!

편리만을 위하는 자

신 동철

편리만을 위하는 자
발머리는 질러 간다
싸은 밟혀 길이 되니
뒤 사람도 밟고 간다

발바닥은 무서운것
싹은 밟혀 영 죽는다
편리만을 위한 발에
밟히는 일 없겠는가?

일이야 크건 적건
편리하다 밟지 말아
후과는 준비한다
그런 자를 밟을 것을

어머니의 속담

양 일명

녀 아이 참 속상해서…
남 동무는 언제나 속만 상하니 어떻게 된 셈이요?
녀 글쎄 우리 어머니가 아직두 미신을 믿으신단 말이예요! 케케 묵은 미신을요!
남 미신? 오—아직두 점치구 굿거리허구 정한수 떠 놓구 손을 싹싹 부비고 산'기도 절'기도에 선황당 대감 모시려 댕기신단 말이요?
녀 아니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 그럼? 오—사주 보구, 관상 보구, 손'금 보구, 궁합 보구, 날받이 하구, 묘'자리 보는 것 말이지요?
녀 아니 그런 허른 소릴 믿는 쓸개 빠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예요!
남 그럼 어떤 미신이요? 귀신이요? 도깨비요? 태풍자요?
녀 글쎄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어머닌 걸핏 하면 애들 보구 《누워 먹으면 소가 된다》구 그러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참 기가 막혀서…
남 오—그거? 그건 말이요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 우선 버릇이 없구 또 소화두 잘 안되겠으니까 아이들의 버릇 곧치려구 허시는 속담 말씀이 아니요?
녀 그건 그렇다 치구…그것 뿐인줄 아세요! 글쎄 대들보가 빌 때 불을 켜면 집안이 망한다니 그래 이전 미신이 아니면 악담이지 뭐예요!
남 동무! 그건 우리 조상들이 생각해 내신 귀중한 말씀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생활이 고주박처럼 쪼들리던 세월에 등잔 기름 한방울이라두 아껴 쓰라구 하신 귀중한 말씀이요!
녀 참 그전에 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등잔'불밑에서 바느질 하시는 걸 볼 때마다 고 까물거리는 불이 안탑깝던 생각을 하면…지금두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다 째릿해져요!
남 그건 단지 옛날에만 해당되던 말이 아니지요! 지금두 우리 앞에는 각 부문에서 절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구 있으니까!
녀 아니 그럼 배전부에서두 전기를 절약하느라구 그렇게 일을 데데하게 하는건가요?
남 배전부?
녀 배전부에서 하는 일은 아주 글러먹었어요.
남 호—
녀 글쎄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남 네 들어봅시다.
녀 글쎄 배전부에서는 아침 저녁 끼니때만 되면 꼭 전기를 적게 보내 준단 말이예요!
남 그럴 리가 있소?
녀 아니 그때만 되면 갑자기 전등불이 어두워지는데두 아니란 말이예요?
남 거 참 이상한데!
녀 글쎄 여니 때는 60촉 짜리두 밝은데 꼭 끼니때만 되면 어두워져서 2백촉 짜리를 켜는데두 시언치 않으니 이거야 배전부의 작간이지 뭐겠어요
남 아니 2백촉?
녀 배전부에서 돼먹지 않았어요! 꼭 전기곤로루 밥을 하기 시작한 담부터 끼니, 때마다 불을 어둡게 한단 말예요.
남 전기 곤로까지!
녀 배전부는 단단히 비판을 받아야 해요!
남 허지만 배전부에서 그럴 리가 있소! 근처에 도적 전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게지.
녀 그럴까요?
남 틀림 없을게요.
녀 음 그럼 우리 반 내에 도적 전기를 켜는 집이 있었군! 이건 인민반 회의를 열구 단단히 규명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돼먹지 않은 전기 도적놈은 그냥 둘 수 없어요.
남 그냥 둬선 안되지요.
녀 이제 가서 당장 인민반 회의를 열어야겠어요.
남 그런데 동무네 2백촉짜리며 전기곤로는 허가를 받구 쓰겠지요?
녀 아이구 그런것까지 허간 무슨 허가예요?
남 그래요? 그럼 어서 반회의를 하러 갑시다. (소매를 끌며) 전기 도적놈은 내가 적발해 줄테니까!
녀 아니 이건 왜 끄세요?
남 빨리 반회의를 열구 전기 도적놈을 잡아내잔 말입니다.
녀 그럼 이걸 놓구 가야지요!
남 놓다니! 돼먹지 않은 전기도적놈은 바루 동무인데 이걸 놔서야 되겠소.
녀 내가요?
남 동무 전기는 공업의 원동력이란 걸 모른단 말이요 우리 나라에서 하루 한시간씩만 가정용 전기를 절약하면 일년 잡구 얼마나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지 모르오? 그런 가능성을 가정들의 전기곤로 전기 다림 촉수 높은 도적전등 낮전등 등등이 잡아먹구 있단 말이요!
녀 그러구 보니 우리 어머니 말씀이 천만 지당하군요
남 아무렴! 생활의 교훈이지! 《대들보가 빌 때 불을 켜면 집안이 망한다》

반비판적 비판 현상

소장 동지께서는 분기 총화 준비에 매우 바쁘다. 그는 우선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최 동무를 조용히 불렀다.

《최동무 이번 분기의 우리 사업소의 실적이 좋지 못한 만큼 총화 때도 이렇궁 저렁궁 시비들이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 동무의 생각은 어떻소?》

최 동무는 말 없이 소장의 얼굴만 물끄럼이 쳐다 본다.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묻는 말인지 의례 그 눈치부터 살핀 뒤에야 대답하는 것이 버릇으로 되여있기 때문이다. 소장은 말을 계속한다.

총화 때는 상부에서도 나올텐데 토론들이 딴 방향으로 달아나선 안되겠거에 말이요. 가령 새로운 창의고안을 여덟달 동안이나 묵삭여 두었다고 김 동무가 들고 일어나도 난처한 일이고, 로동자 사택 자금의 일부를 떼서 소장 사택을 국가 지표보다 배나 더 크게 지었다고 떠드는 자가 생겨도 귀찮은 일이고… 하나 둘 불평을 들고 나서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하고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뒤범벅이 될 념려가 있단 말요. 누구누구가 그런불평을 꺼낼 수 있을는지 미리 알아차려야겠단 말요》

그제야 최동무는 신바람이 났다. 동료들을 헐어서 고해바치는 것은 그의 장'기중의 하나이고 또 그러기 위해 일상적으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김동무는 일상 어떤 불만을 품고 있으며 리동무는 어떤 석상에서 상부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한 일이 있으며 박동무는 항용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는듯 싶으며 홍동무 강동무 정동무 곽동무……하나씩 곱아 내려갔다.

둘이서 이마를 맞대고 여러 시간 쑤군거린 결과 사업에 대한 비판에서 선봉으로 나설 수 있으리라고 지목되는 김동무에게는 휴양권을 주어서 총화때에는 휴양소에 가있게 하고 리동무는 출장을 보내기로 결정되였다.

《저어 소장동지의 사택 문제로 경리과장이 상당히 의견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동무도 출장을 보내는게 어떨가요?》

《그렇다고 전부를 다 출장 보내겠소. 언감생심이지 경리과장이 뭐라고 감히 입을 벌리겠소. 경리일군이란 들추자면 결함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법인데 찍 소리 못하도록 만들어 놓을테니 그건 념려 마소》

이렇게 하여 충분한 예비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총화준비를 위한 협의회가 열렸다. 여기서 제일 먼저 발언한 소장은 우선 분기 사업에 대해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을 판에 찍은 듯이 늘여 놓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서자 엄성부러 격해졌다.

《가령 례를 들어 경리과장의 사업을 좀 봅시다. 입버릇처럼 절약절약 하면서도 이 동무 자신은 어떻게 절약했는가 하면 우선 첫째로 자전거를 잃어 먹었거든요. 그리고도 자전거를 잃은건 내가 아니거니 하고 모든 책임을 하부에만 밀고 자기는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택공사가 늦어져도 이렁궁 저렁궁 핑계뿐이고, 채소 배급 때 키로수가 축가도 태연한 얼굴이고……》

멍게 시작하여 경리과에서 있은 크고 적은 사업상 착오들을 모두 경리 과장의 책임으로 들씌우고 나서

《경리과장 동무의 체면을 봐서 이만큼 말해 둡니다마는 이건 사실 엄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사실을 낳게 한 근본 원인을 따져 본다면 내가 하부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석적이며 구체적이 못되였다는 데 귀착됩니다. 나는 허심하게 자기비판하는 바입니다》

작건 크건 간에 사람이란 결함이 없을 수 없는 일, 그리고 말이란 얼마든지 과장할 수도 있는 법—그러니 행정책임자의 권위를 가지고 격한 어조로 질책할 때 하부를 위축시키기에는 충분한 듯 싶었다. 다음으로 례를 들은 박동무는 대표적인 불평분자 태만분자로 묘사되였으며 그것도 자기가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이니 자기가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비판을 들고 나올 선봉으로 지목되는 홍동무 강동무 정동무 곽동무들이 차례로 도마 우에 올랐다. 심지어는 직무시간에 천정을 쳐다보면서 코털을 뽑고 있은 사실은 홍동무의 사상 동태를 보여주는 표본으로 되였고 강동무가 자기 브리가다의 로동자와 어성을 높여서 언쟁을 한 사실이 작업조건이 보장되지 못한 사실보다 더 작업을 방해한 결로 되였으며, 곽동무가 퇴근할 때 책상 우를 정돈하지 않군 하는건 사업에 대한 그의 태도를 웅변으로 말하는 자료로 되였다. 이렇게 격조 높은 질책을 퍼부은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된 것은 소장인 내가 지도를 충분히 하지못한 탓입니다. 그 책임을 나는 허심하게 자비합니다》하고 그때마다 첨부되였다.

소장의 발언이 끝나자 모두 어안이 벙벙해 있는 가운데 소장 동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최동무가 일어섰다.

《소장동지께서 아주 허심하게 자기 비판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장동지의 모범을 따라 한결 같이 자기비판적 립장에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동무는 한달에 괘측을 두개씩 쓰기로 소비규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개씩 썼다는 등의 자기비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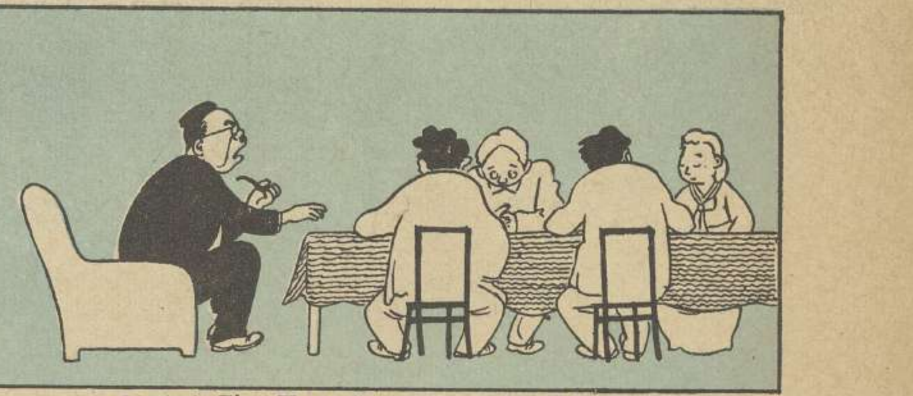
협의회의 결과를 소장은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그가 너무 기뻐하는 것은 조금 이른듯 싶다. 협의회에서 돌아가는 길에 두 청년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을 들을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협의회를 보면 사업이 조금도 개선될것 같지 않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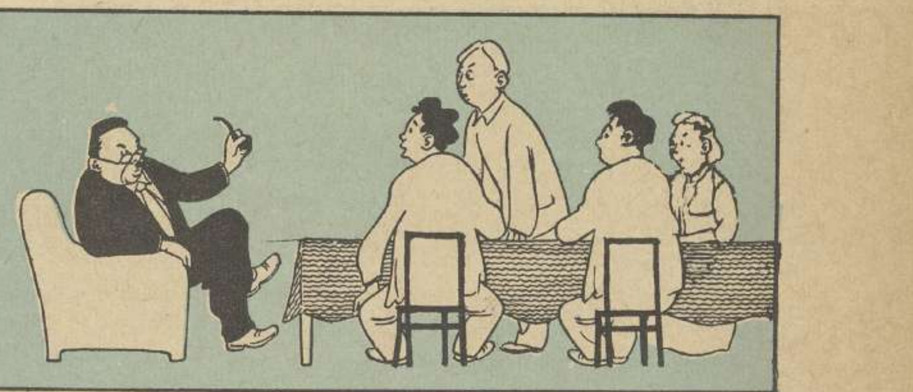
《그리구 소장동무두 자기 힘만으로는 자신의 결함을 곧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됐지. 그러니까 오는 총화석상에서는 소장동무가 자기 결함을 곧치도록 우리가 좀 방조 해 줘야겠네》

가끔 이런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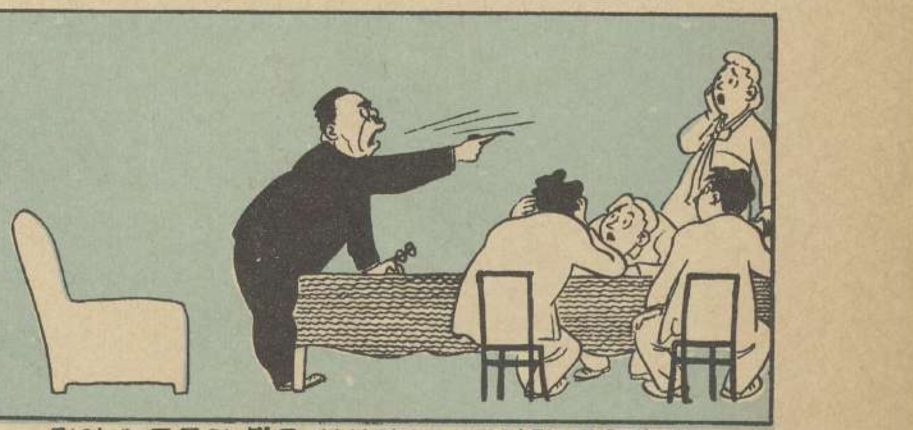
—의견이 있으면 말들 하시오



—의견이 많이들 있을것인데 —자 말들 하시오



—그 그건 나를 중상 모욕하려는 것이요



—뭣이 ? 동무의 말을 사상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소

—또 대담하게 의견을 말씀 하시오

원광수 그림

지나친『후대』

리영춘 그림

지배인—자! 동무들 열렬히 환영들 하시오
이 손님은 오늘부터 우리공장에서 일하게 됐소

로동자—지배인 동지 왜 여지껏 이 기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배인—먼길에서 온 손님이니 푹 쉬게둬 뒀소

창고 속에서

김 문규

그때가 우리 팔자에서 가장 희망 있고 즐거운 한때였습니다. 평양을 떠나 라진을 향하는 렬차에 몸을 실은 우리들은 충창 가슴은 앞으로 다쳐올 새 희망에 설레이고만 있었지요.

회령은 자고로 이름 높은 도자기 산지라 이제 우리가 도착하면 모두들 그 얼마나 환영할 것인가? 또한 재래의 수공업식보다 세배 내지 다섯배의 높은 성능으로 사발이니 대접이니 아름다운 꽃병이니 그뿐인가 기와니 벽돌이니 전기자재니 쾅 쾅 생산해 낼 판인즉 우리 생활인들 그 얼마나 보람찬 것일까!

회령역에서는 회령 도자기 공장의 몇몇 동무가 마중나와 주었섰지요. 마차에 실리워서 공장에 들어서는 그때야말로 환영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들 두레에 로동자들이 우루루 모여들었지요.

《아니 그래 이것이 그 무슨 까다라운 이름을 붙인 기계가?》

《그렇소, 전력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동력이란 성이 붙었고, 빙빙 돌면서 틀을 만든다고해서 이름은 록로 성형기요. 그래 합쳐서 이 기계 성명은 동력 록로 성형기요!》 재치 있는 설명에 우리는 속으로 놀랬습니다.

그날 중으로 우리는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높은 생산을 내자고 로동자들이 모여들어서 기계조립에 있는 열성을 다 기울렸지요. 한때 두때 세대까지 조립이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데서부터인지 추상같은 명령이 내렸습니다.

《전력기가 없으니 동력 록로 성형기는 쓸 수 없다. 그 뿐인가 우리 공장 형편에서 그런 신식은 아직 시기상조하니 쓸데 없는 데 시간을 랑비할게 아니라 그전날 하던 방법대로 생산에나 힘쓰자!》

이런 지배인의 명령이 있은 때부터 우리 신세는 잡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조립이 끝난 세대는 마당에 내동댕이친 채 두만강의 세찬 모래바람을 맞아야 하는 신세로 되였고 나머지 우리들 일곱대는 어둠 컴컴한 창고 속에서 쥐똥내나 맡으면서 팔자 타령을 해야할 신세가 되였군요.

기대와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전변된 신세에 가슴도 아팠고 괘'심도 하였지만 그래도 제 일허라고 찾아온 곳이라 창고 속에 갇히운 몸이나마 항상 밖의 공장 일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우리가 이곳 회령 요업공장에 도착한 때보다 생산 실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내려만 가지 않습니까. 글쎄 보십시요 요업공장에서 전체 생산 성적을 좌우하는 재소로의 가동률이 눈에 보이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도착한 당시인 9월에 재소로 가동률이 91,6%였다면 10월에는 58,3% 11월에는 54%로 엄청나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설비의 리용률이 낮으니 생산 실적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왜 그런가 하고 정신을 바싹 채려서 살펴 보았더니 여기에는 그럴듯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들 기계 열대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든 지배인의 《없다》타령이 일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가마 속에 소지(燒地)를 넣어서 구워내려고 하면 《연료가 없다》는 타령이 나와서 며칠간 허송세월이지요. 연료가 보장되면 이번에는 구워내야 할 소지가 없지요. 다시 그 리유를 따지면 수공업적인 성형 부문에서나마 기능공이 없어서 소지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해답이랍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신세를 망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모양대로 지나다가는 수공업식 성형기들도 모두 우리와 같이 창고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 공장에는 왜 그렇게도 《없다》타령이 많은가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실인즉 없는 것이 한가지 있더군요.

지배인과 기사장의 머리 속에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열성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평양역에는 화주없는 귀중한 기자재들이 풍우에 시달리고 있다.

고생 끝에 하소연

최영근 그림

—더는 여기서 기다릴수 없으니 친정에나 도루 가야 할까봐요
—주인을 좀더 찾어 볼터이니 미안하지만 참으시지요

록음실

리 운봉

창고와 상점

군 상업 관리소에 지도 내려온 도 인민 위원회 상업처 지도원은 상업부의 장부를 검열해 보고 상업 부장에게 물었다.

《왜 수입면직을 창고에 쌓아만 두고 공급하지 않소?》

《아직 상점들에 체화돼 있습니다.》

《체화돼 있다구요? 내가 오는 길에 보니 신흥리 상점하구 연풍리 상점에 품절됐던데요?》

《품절됐어요? 참 그 사람들!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신흥리 상점 점장은 또 왜 품절된 것을 몰랐는가?

《판매원이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하여 상업 관리소 일군들은 재고 실적을 모르고 있었지만 창고의 쥐들은 재고 실적을 잘 알고 있었다.

새로 생긴 악수

악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친우를 만났을 때 하는 악수, 헤여질 때 하는 악수, 무엇을 맹세할 때 하는 악수 등 그런데 독자 여러분! 요즘 새로운 악수가 하나 생긴 것을 아십니까?

아침 출근 시간. 감북동 정류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뻐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이란 사람도 뻐스를 타려 정류소로 나온다. 그는 웬 일인지 줄선 사람들을 죽 훑어보며 지나간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박 동무!》

김은 반가운 듯이 다가가 악수를 하며니 거기에 들어선다.

렬 맨 뒤에 섰다가 한 부서에 있는 김이 그렇게 새치기하는 것을 본 백은 (그게 수로군!)하고 집쪽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나오면서

《김 동무! 오래간만이군!》

하며 이자 끼운 김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고 마침 와 닿은 뻐스에 유유히 선참으로 올라탔다.

독자 여러분! 이렇게 요즘 정류소에서 《승차용 악수》라는 것이 생겼답니다

지배인의 착오

새로 부임한 중앙 은행 단천지점 지배인 렴 태전은 대번에 사업성과를 올리려고 작정했다.

그런데 직장에 나온지 오래지 않아서 실무 능력이 어린 가정부인들이 있는것이 그를 불쾌하게 했다.

(그들을 양성해서 언제?)

당장 성과를 올리고 싶은 지배인에게 그들을 양성하여 쓴다는 것은 너무 굼뜬 일 같이 보였다.

그리고 그는 원래 자기 직장에 가정부인을 두는 것을 싫어하였다.

(해산이나 하면 산전휴가요 하구 놀구 산후 휴가요 하구 놀구 그것처럼 귀찮은건 없거든, 거기에다 일까지 제대루 할줄 모르니…)

지배인은 가정 부인들 가운데서도 그 중 실무 능력이 약한 홍 선옥을 불러다 직장을 그만 두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홍 선옥 동무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그게 또 그만 두지두 않겠다는데! 에잇 못살게 굴레다, 그러면 제까짓것들이 나가지 않구 못 배겨 내겠지.)

지배인은 회의들에서 홍 선옥과 기타 실무적으로 약한 동무들을 호되게 비판하는 한편 행정적으로 일을 잘못하는데 대하여 무섭게 추궁하였다.

이리하여 지배인의 노력은 효과를 나타내여 하 영복이란 동무는 끝내 지점을 그만 두고 말았다.

그래도 홍 선옥이가 나가지 않는 것을 보자 이번에는 그를 부기원에서 정리원으로 정리원에서 출납원으로 장기쪽 옮겨 놓듯 연신 옮겨 놓았다.

(제가 일이 힘들면 나가구 말겠지)

그래도 나가지 않으니까 지배인은 내쫓을 방도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차에 두통거리를 해결할 열쇠가 생겼다 상부에서 어느 부서를 래달부터 없애라는 지시가 온 것이다.

(이거야 말로 두번 다시 없는 기회다!)

지배인은 즉시 홍 선옥을 그 자리에 옮겨 놓았다.

열마 후 지배인은 홍 선옥을 불러다 말했다.

《동무 있던 자리가 없어지게 돼서 참 안됐소》

지배인의 속심을 빤히 들여다 본 선옥은 문을 걷어차고 나오고 말았다.

이렇게 사업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실무 능력이 약한 사람들을 구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 성과가 오를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절 약

경리부장 현 용주는 부원들을 자기방에 불러다 놓고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자재와 자금을 절약할 것이며 일체 자재 출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지시하였다.

그후 부장은 자재부원이 화재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각 사무실 난로 연통과 천정 사이에 댈 철판 출고 결의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렇게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소? 철판을 랑비하지 말고 석탄을 조금씩 때라고 하시오, 그러면 석탄두 절약되구 철판두 절약될게 아니오!》

《그래두 부장 동무 절약을 해두 쓸데 써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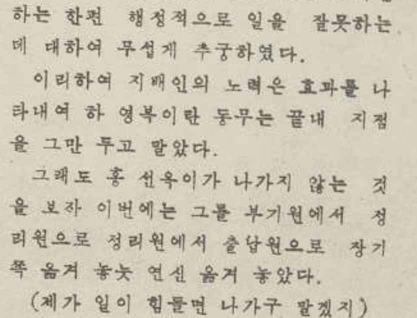
그러자 부장은 와락 성을 냈다.

《동무 사상적으로 옳지 않소, 지금 전 국가적으로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때에!》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절약을 하는것-물론 경리부장의 말은 옳다. 그러나 그는 단 한가지 리해하지 못했는 데 후'날 난로로부터 화재가 일어나 사무실들과 자재창고는 물론 그렇게 굳건히 절약한 자재까지 몽땅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야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화재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리해했으니 그때는 화재 방지를 할래도 할 곳이 없었다

백 화 점 에 서

백화점 가공식료품부 매대는 비여 있다. 판매원은 저쪽 판매원에게 가 무슨 이야기를 하노라고 여념이 없다. 그는 가끔 자기 매대를 흘끔 쳐다 본다. 손님들이 서넛 모여 있다.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았다. 판매원은 이야기를 계속한다.



한 손님이 기다리다 못해 동행자에게 말했다.

《아마 림 꺽정전을 이야기 하는 모양이군》

《그건 어떻게 아나?》

《그게 힘들게 있나 장화 홍련전이나 춘향전 같으면 벌써 끝났을텐데 아직 안끝났으니 그건 틀림없는 림 꺽정전이란 말이야》

《글쎄 정말 림 꺽정전을 꺼냈으면 폐점할 때까지두 안끝날텐데…》

『남조선에서 주인 노릇 하는 미제』

(독자 투고) 조선 인민군 제570호(직) 리 만성 그림

편집 위원 장 진팔, 유 항림, 김 선락, 박 기성, 정 준기, 신 홍순, 백 인균, 송 용남, 리 수근,

발행소 활살 (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 1957. 1. 10. ㄱ—70976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1. 15. (값50원)

승냥이의 해부도

8034 ХВАЛЬСАЛЬ
8 ПЭК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
22 1.12 Н8074

미제—처들어갈 준비는?
리 승만—조고마한 틈바구니도 보이지 않는데요